

역사 잇는 순창 69km 두발로 여행

순창군 청소년 30여명, 역사와 삶 이해하는 도보 여행 길 나서

순창군 청소년들이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청소년 평화순례 두발여행'에 나서 모처럼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도보여행은 나를 찾고, 지역을 알고, 우리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순창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들 청소년들은 4일 동안 순창의 역사와 문화가 잇는 총 69km 길을 걸으며 장소마다 얽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로 듣고 몸과 마음을 키웠다. 또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있는 장소들을 걸으면서 애환심과 자존감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첫날인 지난 7월 31일에는 강천산에서 출발해 낙덕정까지 코스로 문화해설가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은 최초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생가에서 훈몽재, 전봉준관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기개를 배우고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배우고 유학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셋째날에는 전봉준장군의 고된 삶의 문어나는 역사적인 압송로를 걸으며 참가자들이 동화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 지역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날 순례 길은 고추장익는 마



순창군 청소년들이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청소년 평화순례 두발여행'에 나서 모처럼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을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길로 청소년들이 걷고 생각하며 자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청소년들은 이번 도보여행을 통해 과거 마을과 마을을 오갔던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였고, 직접 걸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평화와 나눔

을 생각하는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수료식에서 청소년들은 "순창에 살면서도 순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순창의 지역문화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시 함라면 삼흥 꾸지뽕카페, 착한가게 6호점

익산시 함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정숙, 조상호)에서는 지난 3일 삼흥꾸지뽕카페(대표 박가홍)에서 희망동행 착한가게 6호점 현판식을 진행했다.

삼흥꾸지뽕카페는 익산시 함라면 성당교도소세탁장에서 함라한옥체험관 가는 길에 위치해 있으며 무농약으로 농사지어 운영하는 건강카페로, 꾸지뽕쥬스가 대표메뉴로 꾸지뽕차, 블루베리, 수제요거트, 꾸지뽕 대추차와 쌍화차도 직접 다려서 사용한다.

또한 서비스 메뉴로는 썬버무리가 있으며 무농약 꾸지뽕 농장에서 자생하는 썬만 사용하여 꾸지뽕 분말로 건강과 맛을 더했다.

특히 삼흥꾸지뽕카페의 모든 재료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자가생산과 무농약 계약재배 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며, 성당교도소세탁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소문난 카페이다.

박가홍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꾸준히 기부와 봉사에 참여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한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 군산, 목포, 여수, 통영, 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서 청문실, 하반기 내부고객 보호활동 앞장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하반기 인사로 전입직원 및 자라이동 직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직접 방문 응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전입직원들에게는 고창의 정서 및 근무 분위기를 전해 빠른 시일 내 고창경찰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라이동 직원들과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경청하여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는 직원 간 소통하는 등 내부고객들이 공감하는 청문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박태영 경장은 "처음 고창경찰서 발령받아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직접 청문에서 방문하여 반겨주고 환영해 주니 낯설지만 도움이 되었다며 고창의 분위기를 빨리 익혀 조직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관촌면, 방수숲 구절초 꽃길조성 구슬땀

임실군 관촌면은 최근 방수숲 구절초 꽃길유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면 직원들은 방수리 방동숲 1.2km에 이르는 하천로변에 양수기로 가을에 불거리를 제공할 구절초에 물을 공급했다.

관촌면은 건조 싶은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해 맑은 물이 흐르는 방동숲 하천로변에 구절초 조성을 8천제 이어오고 있다.

강두현 면장은 "삼진강변 꽃길 조성을 올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가을날 산책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나눔의 단비로 폭염이기는 희망 더해

열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반가운 손님이 방문해 두더위 속 기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전달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주인공들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성용경 회장과 국제봉사단체협의회 오재명 회장으로, 그들은 각각 50만원씩을 남원시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달한 것이다.

성용경 바르게 살기운동본부 남원시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 신입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민행복지킴이 활동,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사회 대비 활동 및, 나눔의식과 봉사정신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재명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 실천이 있는 봉사, 함께하는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사

정읍시

◇4급(서기관) 승진 ▲기획예산실 남상필 ▲문화예술과 김형근

◇5급(사무관) 승진

▲기획예산실 최간순 ▲기획예산실 송상준 ▲문화예술과 정정기 ▲복지여성과 강평원 ▲지역경제과 김영환 ▲안전총괄과 박환성 ▲교통과 이호근 ▲세정과 이재호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임 ▲건강증진과 김경을 ▲도시재생과 설재근

기사제보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